

# 디지털 한국학센터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 A Basic Study on the Formation of Digital Korean Studies Center

김 성 혁(Sung-Hyuk Kim)\*\*

이 혜 진(Hye-Jin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2. 5 그의 한국학 관련 사이트                 |
| 2. 한국학 관련 사이트 현황 및 분석 | 2. 6 해외현황(Perseus Digital Library) |
| 2.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서각  | 3. 디지털 한국학센터 구축 방향                 |
| 2. 2 디지털한국학코너         | 4. 결 론                             |
| 2. 3 국사편찬위원회          |                                    |
| 2. 4 서울대학교 규장각        |                                    |

### 초 록

컨텐츠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디지털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한국학 관련 사이트를 바탕으로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분석을 통해 디지털한국학센터의 구축 및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 ABSTRACTS

This paper is proposed a construction directions of digital Korean study center for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materials. It was reviewed and analyzed for findings construction directions in domestic and abroad Web sites such a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ufts University in the USA. The paper was recommended and guided new research direc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igital Korean study center, and suggested some finding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center.

키워드: 한국학, 디지털 한국학센터, 디지털화, 컨텐츠 개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0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정보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ksh@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k0031076@sookmyung.ac.kr)

접수일자 2001년 8월 28일

## 1. 서론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단일망으로 묶이면서 어느 한 국가의 문화가 그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존, 발전시켜 이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현대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문화를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학, 한국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최근 선진국들은 정보통신망을 새로운 간접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축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연구 정보의 기반 구축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디지털도서관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란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 정보와 연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디지털 한국학도서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나아가 앞으로의 한국학 연구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 관련 사이트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삼성 SDS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학 교양포털사이트 '디지털한국학' (<http://www.koreandb.net>),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인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kuksa.nhcc.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http://kyujanggak.snu.ac.kr>)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대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각기 전문가들만 들여다보던 한국고서 및 고전자료 등의 한국학 관련자료도 문서파일이나 그래픽 파일 등으로 디지털화 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키워드 주제별 등의 검색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역사 및 문화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정보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한국학센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한국학 관련 사이트를 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 제공방법, 문제점을 비교 및 분석하고 한국학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한국학 관련 사이트 현황 및 분석

### 2.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서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aks.ac.kr>)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한민족의 모든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증보개정판을 편찬 간행함과 아울러, 한국학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 발표방식인 서적형태의 출판은 물론,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본원의 성과물들을 전산 정보화 하여 보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한국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데 그 설립목적들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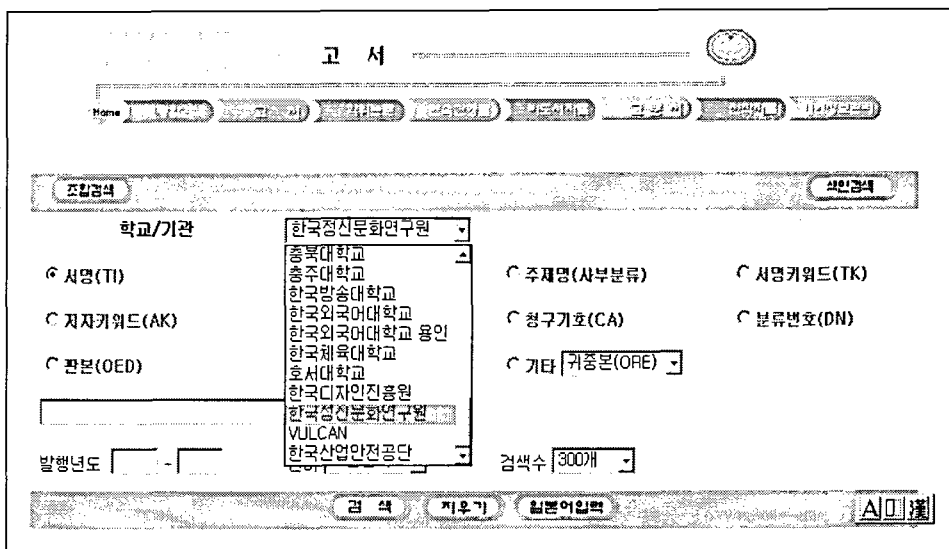
한편 한국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중심기관이 되기 위하여 전 세계와 연결되

는 인터넷 학술 정보망을 구축하여 가동함으로써 한국학 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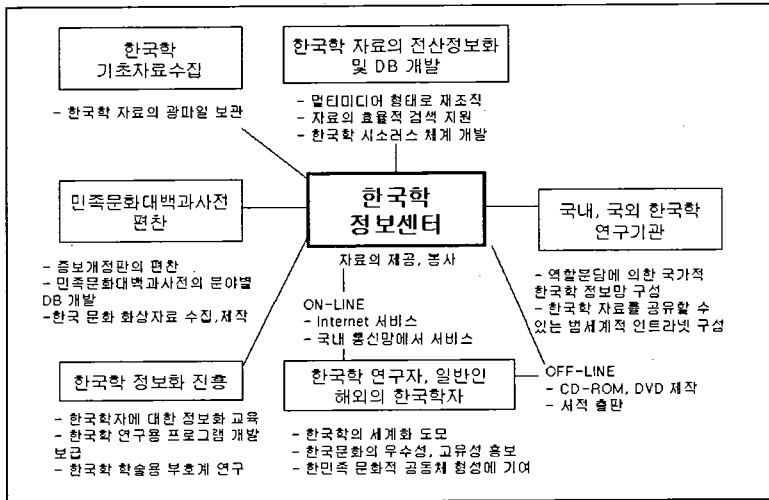
검색 대상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고서 40만 책의 목록과 고문헌 원문화상 2백30만면 등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학전자도서관은 소장도서 목록 전부를 DB화하여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박사 논문 텍스트(12만 6천면), 고서 원문 화상이미지(230만면), 연구원 출판물, 한국학 도서 해제, 한국구비문학 음향자료(MP3)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범서비스 중이며, 영어번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 2. 2 디지털한국학

디지털한국학(<http://www.koreandb.net>)



<그림 1> 한국학 전자도서관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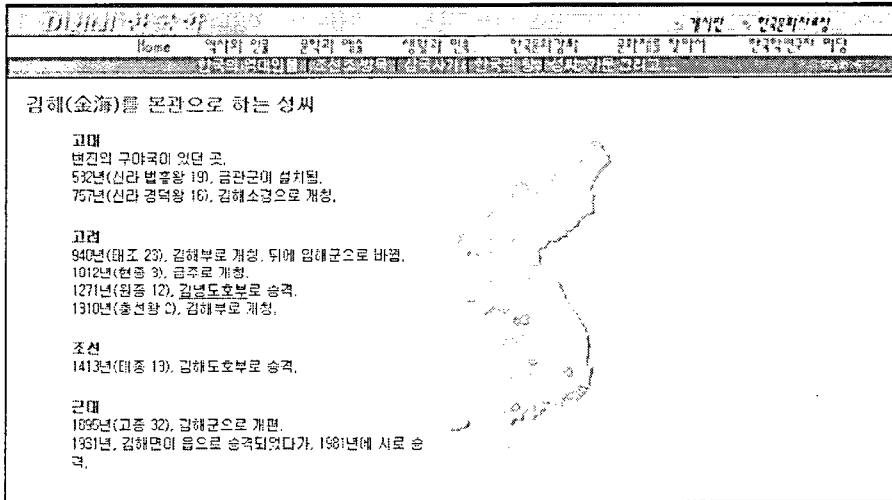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학 정보센터의 기능 및 역할

은 정신문화연구원과 유니텔이 2년여 기간동안 10억여원을 들여 구축한 한국학 교양 포털 사이트로 현재 가장 다양한 한국학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에서 현대까지 우리 한국사에 등장하는 1만 5천 여명을 성명, 자, 호, 시호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의 역대인물',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를 수록한 '조선조 방목'(榜目: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부), '삼국사기', '5백년 조선의 그림', '한국민족문화사전', '한국학 논저목록' 등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한국민족문화사전'은 문학, 어학, 역사, 철학, 사회, 과학, 예술 등 한국학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DB이다. 그리고 국내외 한국학 관련논저를 DB화 한 '한국학 논저목록'은 지금까지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되었던 단순한 목록 제공이 아니라 세부목차와 초록을 제공하여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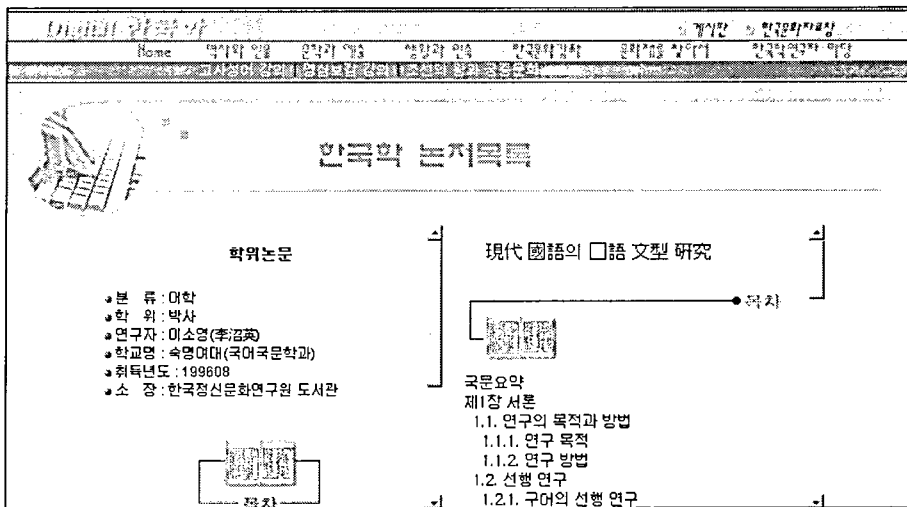
현재는 1천1백여 건의 문학박사 학위논문과 6백여 건의 어학박사 학위논문만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학문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문화강좌'가 있고, 우리 문화유산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500년 조선의 그림', '문화재를 찾아서' 그리고 유명인물의 초상화와 서체도 볼 수 있다.

다른 한국학 사이트가 역사분야에 치중된 것에 비해서 문학, 예술, 생활과 민속 등의 분야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연구자만을 위한 한국학 정보가 아니라 일반인도 염두에 둔 정보로 한국의 옛 가구, 한국의 탈, 한국의 기념일, 북한지역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또한 용이하다. 앞으로 한국고서 및 고전을 비롯해 현대시 총목록, 한국학 영상자료, 한국학 연구인명록 등 한국학과 관련된 정보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아직 정보의 대부분이 역사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한국학 포털 사이트로서는 메



〈그림 3〉 디지털 한국학의 본관검색 결과화면



〈그림 4〉 디지털 한국학의 한국학 논저목록검색 결과화면

뉴 구성이 단순하다. 영어번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 2. 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kuksa.nhcc.go.kr>)로 한국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관련 자료의 목록 내용을 원문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이트의 특징은 한국사 연구자 위주의 자료제공이라는 점이다.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한 고서목록과 색인, 고서 원문화상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국사관논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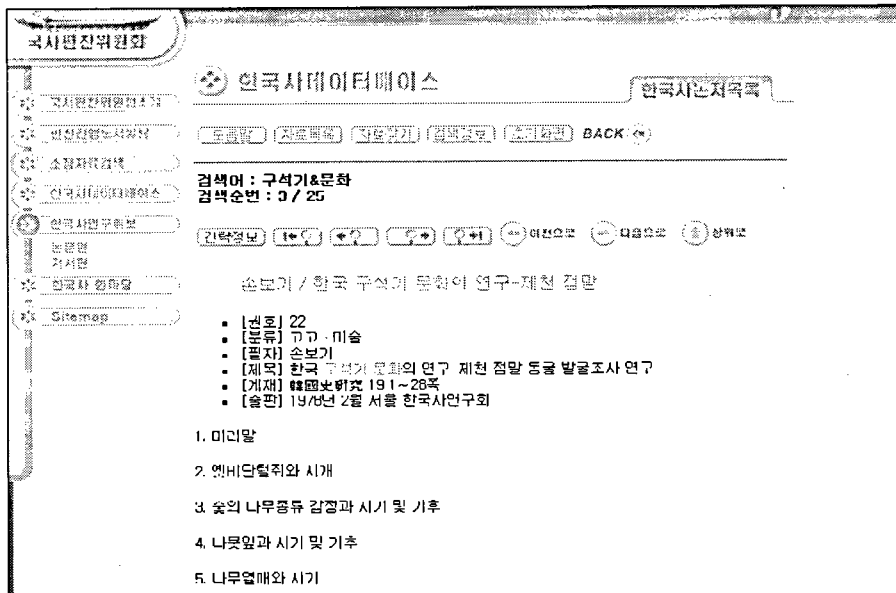
과 한국사론은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연구자들을 위해 한국사와 관련된 27,995건의 논문목록과 8,641건의 저서목록을 목차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한국사연구회보'도 제공하고 있다. 독도관계자료(430건)와 고지도 목록(46450), 고서목록(4,130건), 고문서 목록(19360건)은 DB화하여 분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변사등록'을 국역한 비변사등록(15책) 내용과 비변사등록 총 28권에 대한 인명색인, 각사등록, 한국사료총서, 독립운동가신문조서, 러시아관련독립운동사료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대사연표와 한국사 연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한 1927년 5월에서 1935년 9월 사이에 우리나라, 일본, 만주지방에 산재해 있는 사료를 수집 촬영한 사진(2263종 5580건)·유리필름자료(4802건)의 이미지자료를 제공한다.

전산화는 사료 DB 구축, 전산편집,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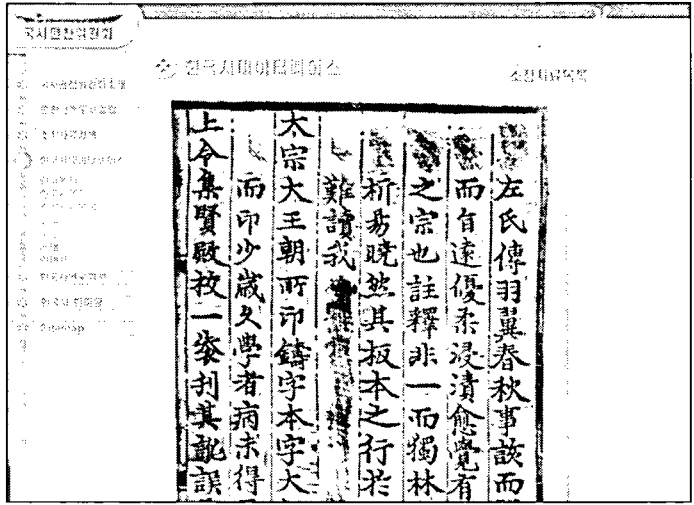
로 필름 자료 인터넷 서비스, 한국사연구회보 간행과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사료 DB는 편찬 자료의 전문 DB, 수집 자료 및 편찬 자료의 목록 DB, 이미지 DB가 있으며 한국사연구회보는 한국사 연구활동과 동향을 계간으로 조사 정리하여 정보지를 간행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는 한국 역사 문화의 한국역사정보에 대한 포털 서비스 및 통합검색시스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현, 연구자 및 관련 기관간 학술정보의 공동활용, 한국역사 문화의 대외 홍보 증진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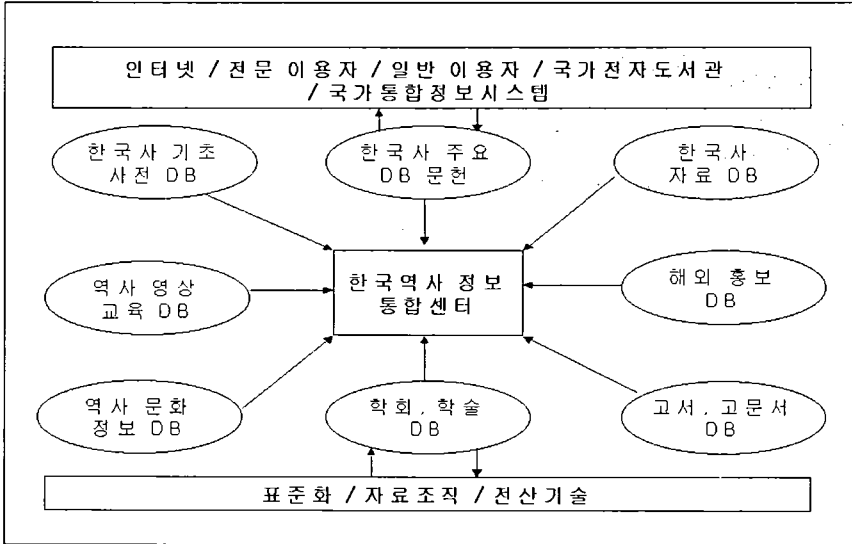
이 사이트는 한국사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갖춘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 자료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만큼의 설명과 검색방법을 갖추진 못하였



〈그림 5〉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 검색화면



<그림 6>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진목록검색 결과화면



<그림 7> 한국역사통합시스템 목표 모델

다. 또한 일반인의 참여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2. 4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사이트(<http://kyujang>

ggak.snu.ac.kr)로 규장각의 소개 뿐 아니라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과 내용을 제공한다. 규장각은 고도서 17만 5천여 책,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1만 8천여 점 등 총 26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서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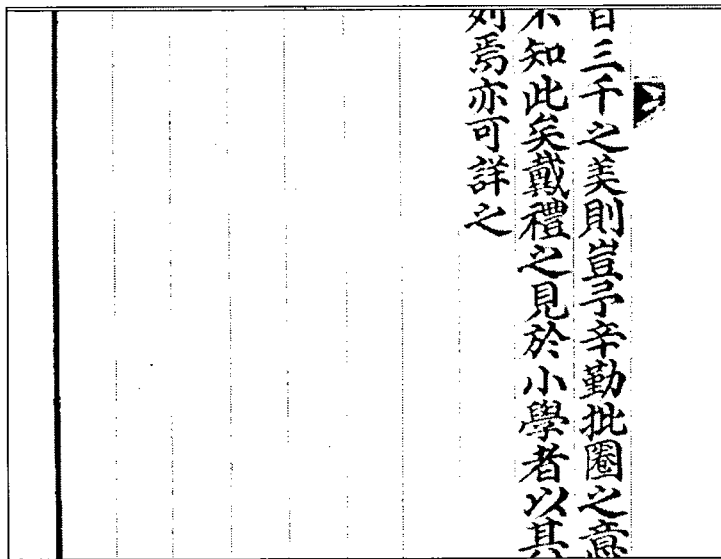
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서의 정보와 내용 해설을 담은 해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원문을 텍스트 또는 이미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실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우선 소장 자료의 원문을 이미지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록 및 해제 DB와 연계하여 어느 곳에서나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 이용자 및 연구자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통신으로 접근, 소장자료의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자정보실' 원문자료 코너에서 삼국사기 고려사 홍재전서 경국대전 구운몽 여유당집 동국여지승람 등 12종 자료의 원문 화상

이미지를 제공하며, 기타 규장각 관련 조선시대 일반 지식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자료검색'에서는 고서 및 도서 목록 DB와 해제 DB가 구축되었으며 고서 마이크로 필름이나 단행본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1, 2, 3집을 CD-ROM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는 규장각 내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다.

### 2. 5 그외 한국학 관련 사이트

민족문화추진회는 한국학 관련 사이트를 제작중이며 현재 고전국역총서에 대한 CD-ROM검색이 가능하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정보센터 개설하여 제작중이나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 한국학 국학연구원(www.hankukhak.net)은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철학, 종교, 과학 등을 동아시아의 문화적 관련 아래 연구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는 국학연구원 소개



〈그림 8〉 규장각의 고서원문이미지 검색화면



수준의 사이트로 전문 자료 및 정보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문학정보 포털사이트 (www.textkorea.com)는 한국문학정보를 총체적으로 검색하는 사이트로 현재는 한국현대문학 중심이나 국문학은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이트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웹서비스'는 고려대장경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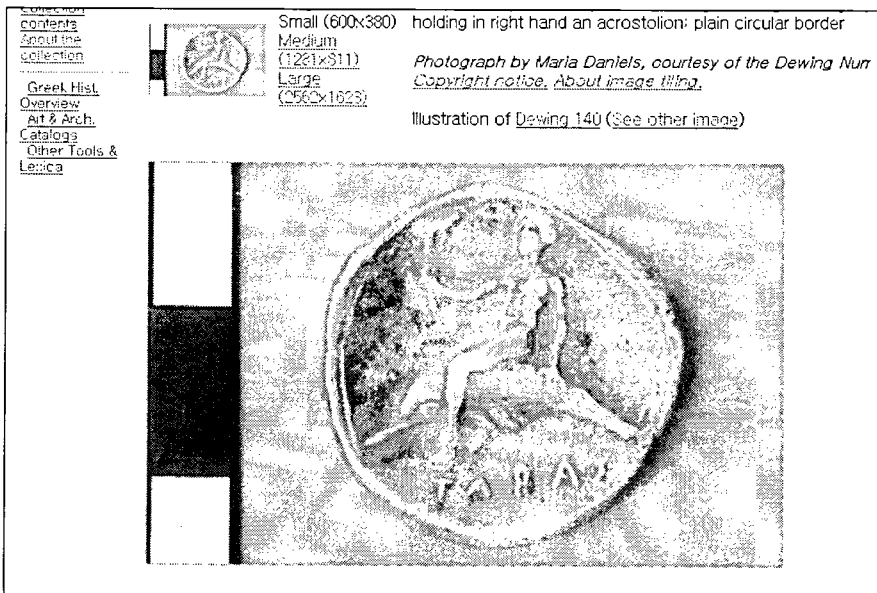
## 2. 6 해외현황(Perseus Digital Library)

Perseus(<http://www.perseus.tufts.edu/>)는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시간, 공간, 언어와는 상관없이 서로간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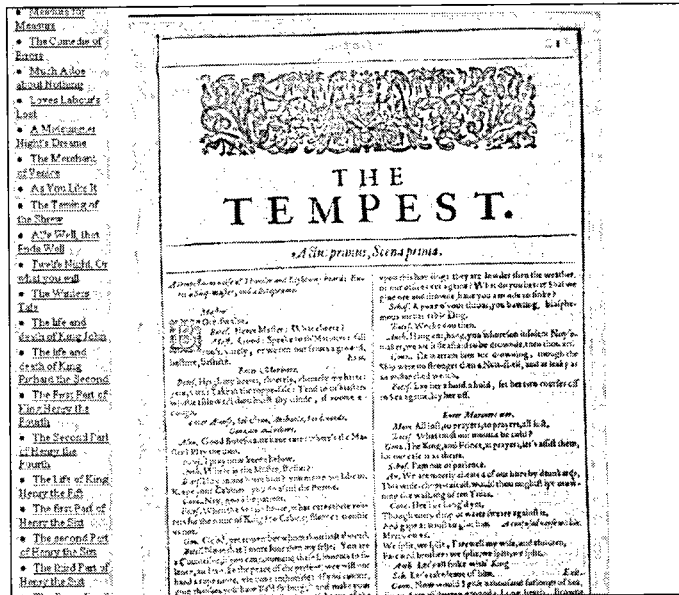
대한 정보원에 대하여 좀더 나은 접근을 기대하며 정보원에 대한 질적인 문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 아이디어 교류 등을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erseus Digital Library의 콘텐츠는 크게 Classics, Papyri, English Renaissance, London, Pioneering the Upper Midwest, Tuft Hisot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lassics는 고대 그리스 로마 등의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이는 정보의 유형을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찾으려는 대상에 대한 텍스트, 지역정보, 디지털 이미지, 지도를 포함한 분산된 정보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술/고고학에 관련한 폭넓은 자료가 있으며 이에 1,500 점 이상의 꽃병장식, 1,800 점 이상의 조각, 1,200 개 이상의 주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의 정보와



<그림 9> Perseus의 주화검색 결과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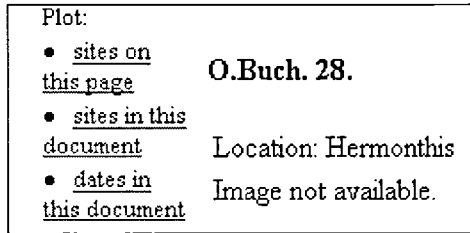
〈그림 10〉 Perseus의 소설 원문 이미지검색 결과화면

키워드는 기본 정보원 즉, 각 대상의 엔트리 내에 위치한 정보원으로부터 추출된다.

Papyri는 Duke Data Bank of Documentary Papyri (DDBDP)의 웹 버전이며 이는 500개에 가까운 양의 파피루스가 디지털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Perseus는 Papyri 정보원에 접근하기 위해 4가지의 기본 검색 툴 즉, 브라우징, 단순 검색, 단순 어휘 검색, 고급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우징은 단순히 Papyri에 관한 텍스트를 검색하고자 할 때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papyri의 콘텐츠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브라우징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순검색은 전체 코퍼스나 하나의 정보원에서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단순 어휘 검색은 주어진 단어에 대한 형태학적인 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고급검색은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glish Renaissance는 근대 시대의 영국과 관련된 정보원을 모아놓았으며 지금은 Shakespeare의 작품과 그 시대에 나온 정보원을 2절판 정도의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

London은 London과 관련한 과거 인쇄물 뿐만 아니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인쇄물, 다양한 형상과 포맷의 지도, 일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북(online book)은 국회도서관의 General Collections와 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의 장서들을 디지털화한 페이지 이미지와 복사,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텍스트와 페이지 이미지에 대하여 서지사항을 기술하였다. 이용자들이 직접 장서를 다루길 원한다면 도서의 페이지에 대한 이미지를 전송 받을 수 있거나 디지털 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Perseus Digital Library는 검색하는 대상에 관한 지리적 위치



<그림 11> 검색 대상의 위치, 날짜 검색 틀

와 날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4. 디지털한국학 도서관 구축 방향

디지털 한국학 도서관이 구축되면 모든 사람이 pc를 통해 도서관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보검색과 정보획득 시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내외 관련학문 연구자들의 연구력이 증진될 것이며 따라서 정보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학 관련 사이트의 전반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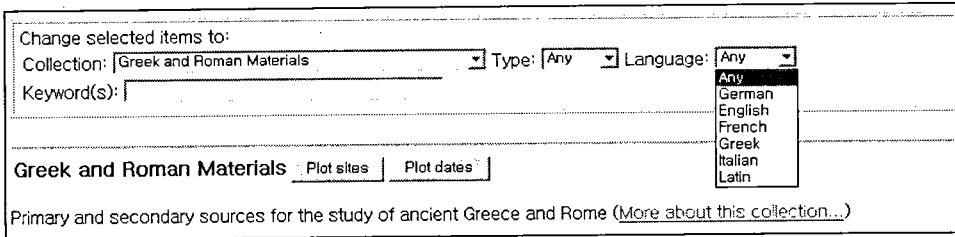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학 관련 사이트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해서 인문학 분야의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검색 틀을 제공하고 있는 Perseus Digital Library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 한국학 도서관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검색에서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한국학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학, 한국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및 주요 언어와 호환이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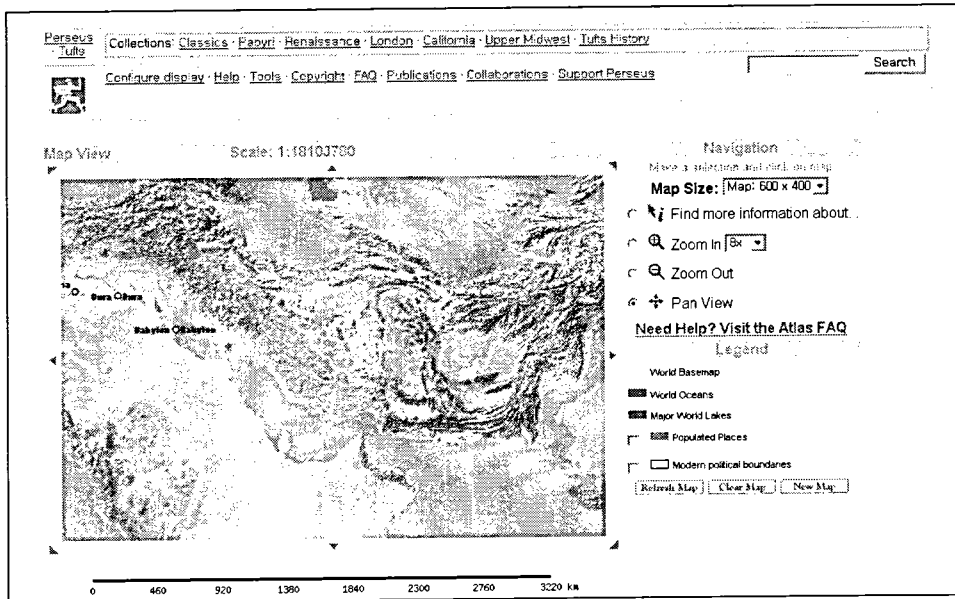
수 있는 병렬 및 이중언어 사전, 코퍼스 용어집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Perseus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한 언어의 질의어를 이용자가 검색박스에 쳐 넣으면 여러 언어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서로 호환하여 비슷한 단어를 찾아주는 기능도 있으며 그리스어의 방언까지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한국학 관련 사이트에서 언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영어로 된 사이트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학 관련 사이트 중에서 영문 사이트가 구축된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디지털 한국학 도서관의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디지털화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여기에는 3D와 이미지 캡처 기술,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 등과 함께 이러한 자료들의 원활한 브라우징을 위한 기술 또한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디지털한국학 도서관에서 제공할 자료는 크게 한국학 서지 및 해제, 한국학 문헌 자료 데이터베이스, 영상·음향자료 데이터베이스, 실물자료 및 한국학연구동향 등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 사이트는 정보 검색 대상의 단순한 소개와 이용방법을 나열



〈그림 12〉 Perseus의 검색 톨 박스(외국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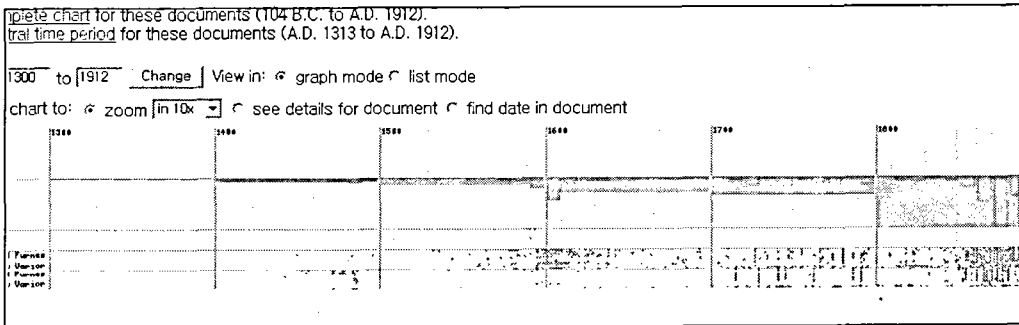


〈그림 13〉 Perseus의 검색대상 위치정보

하거나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듯 검색 결과에 대한 단순한 소개나 이용 방법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문서파일이나 그래픽 파일로 디지털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찾고 이용자가 원하는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면 국내의 전자도서관은 원문의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곳은 드물고 서지 정보 정도만 겨우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이미지화 된 자료제공도 부족하지만 그 원문 내용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원의 공유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와 VRML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검색 대상의 문서와 지리 공간적인 정보를 기술적으로 통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각적이고 지리적인 분석의 이점을 가지고 통계적 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그림 14〉 Perseus의 검색대상에 관한 Date 정보(그래픽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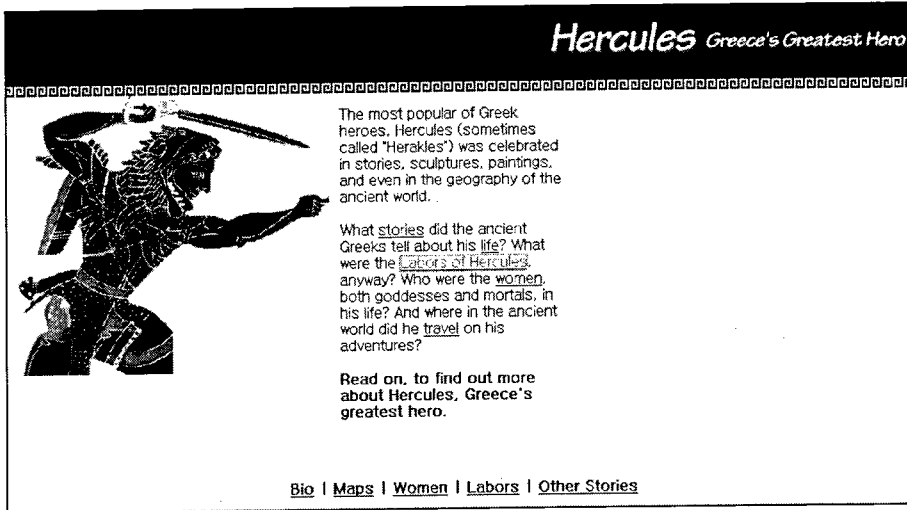
베이스 오퍼레이션을 통합한 GIS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GIS 시스템은 지도 내의 복잡한 데이터 셋을 시각화하여 주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도 내의 변수들과 그와 관련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도 정보 틀은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된다. Perseus Digital Library에서는 검색 대상에 대한 위치 정보 및 날짜 정보 등에 대한 검색이 더불어 진행되어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대상의 역사적인 이해와 시공간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지형의 변화된 모습이라던가 행정 경계의 변화나 포함 범위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 공간적인 정보와 텍스트 문서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자동 연계 시스템 방법을 통한 텍스트 정보와 시간적, 지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한국학 도서관은 한국학 전반에 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학 관련 사이트들은 역사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역사분야 외의 한국철학,

한국사상, 한국문학, 한국미술, 한국음악 등을 전공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일반인은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한국학 도서관의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분야의 개괄적인 정보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관 및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특정 인물을 검색할 경우, 그 인물의 정보 뿐 아니라 주변인물, 시대 사상, 문화, 시대상황까지 연결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하이퍼텍스트 등을 이용). Perseus는 〈그림 15〉와 같이 헤라클래스와 관련된 조각품을 검색하면 이미지화된 조각품뿐만 아니라 신화, 주변인물, 지리적 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디지털한국학 도서관은 관련 학문의 전문가만을 위한 사이트보다는 일반인 누구나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끔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방법과 정확한 검색력, 정리된 검색결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공된 정보의 형태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 pc 사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그림 15〉 Perseus의 헤라클레스검색 결과화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문헌을 위한 인터페이스만 연구되어 왔지만 향후 한국학의 특성을 살린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디지털한국학 도서관은 한국학의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국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학 관련 사이트가 많이 구축 중이지만 이들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들을 모아주고, 보다 쉽게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이트는 구축되지 못하였다. 사이트의 형태는 일반 포털 사이트의 형태로 다양한 분야(문학, 역사, 철학, 문화, 학회 및 기관 등)를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항목(시대별, 분야, 자료형태 등등)을 정하고 항목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 밖에도 텍스트 인코딩,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측면, 자동 분류 시스템, 디지털 보존 기술, 다양한 이용자 레벨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TEI, XML 등의 문헌

구조화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학 문헌에 대한 텍스트 인코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시각적이고 지능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 분류나 메타데이터를 통해 정보원의 분류와 조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동, 에뮬레이션, 리프레쉬 기술을 통해 디지털 보존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 관련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학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방향을 살펴보았다. 아직 우리나라의 한국학 관련 사이트는 기술면에서나 콘텐츠 면에서나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디지털 도서관은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학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학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형태로 한국학 자료를 보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

여 세계 여러 이용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디지털 도서관 기술을 통해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충분한 지원, 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원문의 디지털화(3D 포함), 지리 공간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디지털 도서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원은 한국의 역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사상, 예술 등의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학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은 한국 정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4. 결 론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콘텐츠의 확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정부 중심의 콘텐츠 육성 방안이 게임이나 오락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보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국민, 나아가 전세계의

인류가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 및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만의 콘텐츠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인쇄매체 중심이 아닌 디지털 매체 중심의 디지털한국학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콘텐츠 개발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문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부제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인문학의 연구 활성화 및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 즉 콘텐츠 개발자로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전세계가 콘텐츠 비즈니스를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우리만이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학이야말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디지털 한국학 사이트

〈<http://www.koreandb.net>〉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전자도서관 사이트

〈<http://lib.aks.ac.kr>〉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kuksa.nhcc.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Perseus Digital Library

〈<http://www.perseus.tufts.edu>〉

“The Tiger Project : Korean Culture and Heritage DL” : US-Korea Joint Workshop on Digital Libraries, 2000